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 빌립보서 2:1-30

요절: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개회 메시지에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정과 소망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합심동역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미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며 사랑하고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선수들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플레이가 중요합니다.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걸으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단이 언제나 틈을 타서 분열을 이룰 수 있기에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역사를 섬기지 못하는 원인은 다툼 즉 이기적 욕망과 허영 즉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동료 선교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 목자들, 더 좁게는 부부간의 동역에도 해당이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없고 동역역사를 섬길 수 없습니다. 걸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통제한다고, 권위를 내세운다고, 합심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걸으로는 동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칼을 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 집니다.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서 ‘품는다’는 말은 ‘간절히 추구한다’ ‘애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애쓸 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비우셨

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 전 우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와 찬양,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와 만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깨끗이 포기하고 낮아 지셨습니다. 둘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죄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죄인 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낮아져서 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고자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셋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고통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심한 통곡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겻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의 투쟁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통곡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과 겪은 고난을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자, 예수님을 배우고자 할 때, 기도와 통곡의 투쟁을 하게 되고 그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양들을 품고 동역자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저희를 위한 희생과 섬김, 인내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까지 기도의 투쟁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하늘과 땅,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에 입성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12절 말씀은 문맥으로 볼 때, 교회에서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성숙함을 이루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투쟁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 뜻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또 하나가 되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만 주실 뿐아니라 이를 친히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동역자를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과 역사를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불신 세상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각각의 선교지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역사와 제자양성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의 소식을 알고자 친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헌신된 자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복음 안에서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헌신한, 주 안에서 형제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피를 나눈 형제요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생명의 동역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자신의 일과 목숨보다 주의 일에 마음을 쏟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남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권총강도의 위험 가운데 캠퍼스 복음과 제자양성역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실제 총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을 귀히 여기고, 주 안에서 함께 한 동역자로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생의 목적을 몰라 방황하며 술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1991년 여름 수양회에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인생목적은 깨닫게 도와 주시고 선교사로 살고자 기도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때부터, 아시아의 한 가난한 나라의 지부장 선교사가 되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많은 제자를 세우며 인정받는 위대한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한나 선교사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첫 아들을 낳고 주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포어로 요한이라는 조왕과 발음이 비슷한 주왕이라고 이름을 짓고 브라질 선교사로 나가고자 기도하였습니다.

1996년 하나님께서는 한나 선교사가 둘째 딸, 에스델을 임신했을 때, 브라질 선교사로 보내 주시고 그토록 소원하던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었으니 다 이루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언어정복의 흥해와 물질자립의 흥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델의 출생과 함께 브라질 영주권을 허락해 주시고, 브라질 우스피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석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석사공부보다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석사공부를 하면서 받는 장학금을 물질자립의 일환으로 여기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2년만에 마치는 석사를 5년에야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곧이어 박사과정에 들어 갔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 물질자립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5년, 당시 세계대표셨던 사라배리 선교사님이 제시하신 기도제목과 성령의 방향으로 에콰도르 개척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에콰도르 엘지 지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알려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당시 37살에 스페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상태라 인간적으로 볼때 제가 채용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향에 순종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에콰도르에 와서 직장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주일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할 뿐이었습니다. 2007년 중순 경에 회사에서 일이 생겨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립을 할 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8년 퍼듀 국제 수양회 때, 한나 선교사에게 요 3:16절 말씀을 주시고 선진국 양들뿐만 아니라 후진국 에콰도르 양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그 해 과야킬 의대에서 사라 루이사 레온 목자를 피싱케 도와 주시고, 2010년 에콰도로 첫 제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2012년, 저는 또 다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에콰도르 첫 자립 부활절 수양회를 전심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제로 2박 3일 부활절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총 26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총 7명의 제자들이 서고, 비록 직장을 잃긴 했으나 곧 위대한 선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다니던 첫째가 부모님들때문에 후진국에서 와서 고생하며, 한국인도 에콰도르인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회의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잘 자란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발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라던 몇몇 목자와 양들이 정욕의 죄를 짓고 임신을 하고 역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2019년에는 팬데믹으로 부활절 수양회도 취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캠퍼스로 나가 피싱도 할 수도 없고, 예배도 센터에서 사라목자와 가족 중심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직장을 잃은 후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정수기 사업은 자립은 커녕, 7,8시간을 밤차로 이동하여 필터를 교환해 주고 그날 다시 밤차로 돌아와 몸만 축났습니다. 에콰도르를 개척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지부장이 되면 역사를 크게 이루고 물질자립도 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자녀들도 잘 자라나 품나는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단 한명의 아브라함도 세우지도 못하고, 자녀 문제와 자립 문제로, 실패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와 말씀공부 등을 의무감에 억지로 마지못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 집 앞에서 권총강도를 만나 그 달 월세로 번 돈을 모두 털렸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집으로 들어가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한나 선교사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쥐 버리지 왜 반항했느냐며 한나 선교사가 내게 힐책하듯 물었습니다. 또, 두렵지 않았느냐고 묻는 한나 선교사에게 “두렵지 않았다. 죽으면 천국가는 것 아니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나 선교사는 가족은 생각지 않고 자기만 천국 갈려고 한다며 정말 이기적이라고 톡 쏘아 붙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얼마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인가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 죄인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는가 깨닫고 애통히 회개케 됩니다. 제자들을 많이 세우고 자녀들이 잘 나가며 물질적 어려움없이 안정적으로 역사를 섬기는 동료 선교사님들과 비교하며 시기심과 경쟁의식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케 됩니다. 이제 후로는 이기적이고 부족한 나같은 자를 포기치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내하고 함께해 주신 예수님의 자비와 인내와 희생과 겸손을 배워,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한나 선교사와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료 선교사님의 일을 돌아보고 마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합심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이 우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가운데, 충성스럽게 에콰도르 개척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헛된 영광을 내려 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만 한 마음, 한 뜻

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분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배워 한 마음, 한 뜻으로 개척역사와 세계 선교 역사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